

이입사행설 연관에 주목

금강삼매경 ①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이지만 선 수행도 그 나름의 이론 형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여러 선의 이론들이 성립했고 선승이 성립하는 데에도 여러 경전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능가경), (금강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도 이입(理入), 행입(行入)의 이입설(二入說)이 나오므로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설(二入四行說)과의 연관 문제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이 경전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므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경전이다. 먼저 이경의 성립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선사상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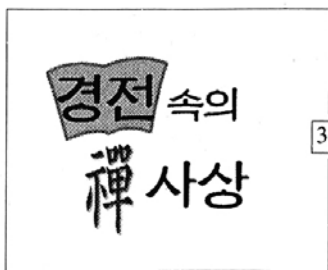
(금강삼매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양(梁)나라 시대 승유(僧祐: 445~518)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나온다. 여기에 도안(道安: 314~385)의 (양토이경록(涼土異經錄))(현존하지 않음)에는 (금강삼매경) 1권(역자 불명)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없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이후의 여러 경전 목록에는 계속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다가 730년의 경전 목록에서는 현존하는 것으로 나온다. 몇 백 년 동안이

글쓴이



최유진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나 없어졌던 경전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신라에서다. (송고승전)의 원효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강삼매경)의 발견 및 그 경전과 원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왕비가 병이 났는데 백방으로 애써도



원효스님이 최초로 주석서 펴내 강의 '한국찬술 위경' 등 성립배경에 이론

고치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 약을 구하려 배길로 사신을 보냈더니 가는 도중에 용궁에 가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용궁에 주 관되어 있던 호트러진 (금강삼매경)을 보면서 왕비의 병을 인연으로 이 경전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라고 하면서, 대안 성자에게 순서를 맞추도록 하고 원효 법사에게 주석서를 써서 강의하도록 한다면 왕비의 병은 반드시 낫는다 하였다. 대안이 경전의 순서를 맞추고 원효가 소의 수레 위에서 주석서 5권을 지었으나 도적을 맞아서

다시 3권으로 주석서를 써서 강의를 하였다. 3권짜리 주석서가 중국에 수입되었는데 나중에 경전 번역하는 삼장법사가 논으로 삼았다."

이 경전은 도안의 목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730년의 목록에 다시 나타나므로 위경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위설이 나와 있으므로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설이 이 경전에 근거한 것이라 하여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955년에 이 경전은 번역 경전이 아니라 한문으로 찬술된 경전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이 경전에 원장의 신역 용어가 나타난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설에 경전적 근거를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650~665년 무렵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는 위경이라는 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그 제작자와 제작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설은 없는 상황이다. 당나라 초기 중국에서 종래의 불교학설에 통한 자가 그런 제학설 말라하여 지었다는 설, 우리 나라 최초의 선승인 법랑(法朗)이 작자라는 설, 대안(大安)이라는 설, 대안 작자 혜공(惠空)이라는 설, 원효가 먼저 (금강삼매경론) 쓰고 대안이 (금강삼매경)으로 정리했다는 설, 거사를 이상으로 하는 인물이 제작했다는 설, 한국에서 거사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 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설 등의 여러 학설이 나와 있다.

현재의 연구 동향을 보면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찬술되었다는 설이 좀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전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송고승전)의 기록을 보아도 그러하고, 원효의 주석과 함께 이 경전의 존재가 알려지므로 중국보다는 한국에 먼저 이 경전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전의 제작자 문제도 중국 선종과의 연관성 아래에서만 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 경전이 우리 나라에서 찬술된 것이라면 고려대의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조선대의 (법보인유경(念佛因由經)) 및 우리가 잘 아는 (천수경(千手經))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전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 내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종생이 우주라지만

진리의 향기 ④

우

리가 의지라고 믿는 것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이 의지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생한다. 우리는 이 반응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삼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빛는 것은 우리의 것과는 전연 무관하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 주는 일은 희소하다. 또 그 결과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며, 서로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때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마음 씀스이는 우리의 모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즉 행위를 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친절한 생각은 우리의 얼굴을 밝고 즐겁게, 심지어는 아름답게까지도 만든다. 성내거나 미워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위는 우리 얼굴에 추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가 주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태도면에 끼치는 직접적 결과 이외에도 보다 먼 장래에 끼치는 훨씬 중요한 결과가 또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변 환경에 끼친 직접적 영향의 확대판이라 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그 하나 하나가 전 우주를, 그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생활환경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

개어 있으면 업의 전개과정 알수 있어

질서정연한 진행을 바꾸어 놓는다. 물론 그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긴 하다. 그러나 전 생애에 걸쳐 짓는 우리의 행위의 총체는 우리가 씨뿌린 영향력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익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한 탓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실제로는 자기 마음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며 또 자기가 봉착하는 갖가지 사건이나 사태도 자신이 과거에 지은 행위가 맺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개개인간에 겹겹으로 얽히고 실린 복잡한 관계와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수많은 유사성의 욕구와 성향 때문에 갖가지로 색다른 존재들이, 이를테면 한 개의 동일한 세계에 같이 존재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우리의 내면적이며 맹목적인 성향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그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성향이 갈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특유의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결론로 보기에 하나의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각자 나름의 세계관이란 그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며, 사실상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자기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챙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와 모든 행위를 빠뜨리지 않고 낱알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업의 결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것에 대해 마음이 구체적 반응을 취하는 중요한 순간을, 다시 말해서 의지적 행위가 취해져 업의 전개를 다시 한번 작동시키고 그래서 결국 영속적으로 거듭 되풀이되도록 만들고 마는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m.com)

과학산책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설명한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보어는 "양자역학에 의해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기는 했지만 왠지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주제라고 느낀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양자역학의 매력은 양자역학이 체계화되면서 관찰자와 관찰대상과의 연관성과 같은 인식론, 경험론, 존재론 등의 철학적 문제가 과학적 사고에 깊숙이 도입된 것이다. 또한 양자역학은 데카르트와 뉴턴의 이론론, 기계론보다는 종교의 신비적 경험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전체성을 강조하는 사고를 강요한다.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원자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실험이다. 이중 구멍(double slit) 실험이라고 불리는 장치의 중앙에 벽이 하나 있고 이 벽에는 중앙에

서 약간씩의 거리를 두고 가나란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이 벽 너머에는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검출기는 실험에 따라 다양한 기계를 쓰인다. 벽 앞면에는 발생장치가 설치된다. 각각의 말하면 무언가를 두 개의 구멍이 뚫린 벽에 쏘아 보내고 벽 뒷면에서 검출기를 이

전체를 봐야 사물 바로본다

음파 · 전자발사 실험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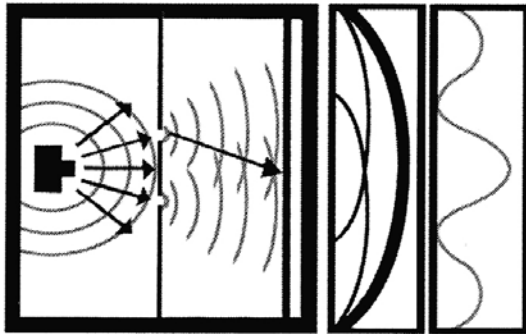
상호간섭 현상 알아내

음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총알을 쏘아본다. 두 개의 구멍 중 하나를 막고 실험을 해본다. 뚫린 구멍의 중앙 뒤면에 총알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적어진다. 다른 구멍에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면 역시 같은 결과를 얻는다. 자 이제 양쪽 구멍 모두를 열고 실험을 한다. 결과는 각

구멍을 열고 실험한 결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즉, 검출기가 설치된 벽면 중앙에 가장 많은 총알이 발견되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총알이 적게 발견된다. 이제 총알대신 음파를 쏘아 보자. 위에서와 같이 한쪽 구멍을 막고 실험을 한다. 한쪽 구멍을 막고 실험을 하면 중앙의 경

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린 구멍의 중앙에서 가장 많은 음파가 검출되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음파가 적게 검출된다. 양쪽 구멍을 모두 열고 실험을 하게 되면 중앙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즉, 간섭효과에 의해 벽면 중앙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중앙에서 멀어지면서 작은 값을 갖다가 다시 값이 증가하여 중앙보다는 작지만 그 부근에서



는 최고치를 갖는다. 이런 경향이 검출 벽면의 중앙에서 멀어지면서 반복된다. 이는 양쪽 구멍을 통과한 각각의 음파가 최대로에서 합해지면 큰 값을 갖게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해지면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크고 작은 값의 변화는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이는 초급 물리 시간에도 배운 내용으로서 음파와 같은 파는 간섭할 경우 모두를 통과하여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총알의 경우는 음파의 경우와는 달리 한쪽 구멍만 통과한다.

자, 이제 전자를 가지고 실험해 보자.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여겨지고 있다. 아직까지 전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다는 증거가 없

기 때문에 전자는 기본입자로 여겨지고 있다. 전자는 총알과 같이 공간상의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으므로 위의 총알 실험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자총을 이용하여 전자를 발생시켜 벽면에 쏘아 구멍만 열고 실험을 한 뒤 이 구멍을 닫고 다른 한쪽을 열고 실험을 반복한다. 한쪽 구멍만을 열고 실험을 하면 총알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내는데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양쪽 구멍을 모두 열면 결과는 음파의 경우와 같다.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양쪽 구멍을 모두 통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음파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내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참배음과 참살천의 보살행 제2기 복지보건 간병봉사자

신입생 모집

불교복지보건대학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복지보건 간병봉사자과정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전문화된 보건의식과 간병 실습을 통해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학안내

구분	제2기 복지보건 간병봉사자과정
입학자격	간병봉사에 관심있는 19세이상~60세
강의기간	99년 9월 7일(화)~12월 3일(금) 3개월
강의일시	매주 화,금(오후 2~5시)
강의장소	불교복지보건대학
원서접수	1999년 9월 7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불교복지보건대학교무실 ☎ 647-6556
모집인원	80명
입학식	1999년 9월 7일(화) 오후 2시
수강료	50,000원×3 (3개월 교재제공, 분납가능)
특전	유급, 무급 간병봉사자 활동 알선 (유급활동을 위한 상담실 운영)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학장 혜도스님

뜸.사.랑 부산동문회 결성

『침과뜸으로 승부한다.』의 저자

· 한국 최고의 침구사 ·

『김남수』 원장 초청 강좌 모임

김남수 원장은 ...

「침」과 「뜸」에는 중국과 일본의 명 의들도 선생님이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 정지.경제 인사들의 단골침구사로 활동하시며, 선생님께서 복지보건 봉사활동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침인술을 배우시는 명인 이십니다.

다음

- ◇ 첫 강좌 99년 8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10시)
- ◇ 강좌기간 99년 8월 30일(월)~ 2000년 2월 28일(6개월)
- ◇ 강좌시간 매주 월(오후 7시~10시) 토(오후 2시~ 5시)
- ◇ 접수마감 99년 8월 28일(토) 까지
- ◇ 장소 불교복지보건대학
- ◇ 참가대상자 스님, 법사, 의료인, 지강인, 명퇴자, 주부, 대학생 등 전통의학 (자연요법, 대체요법, 민간요법)에 관심 있는 분)
- ◇ 문의 051)647-65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건축사협회 빌딩 6층) 문의: 051)647-6556 팩스: 051)647-6554

大道真人 육신(庚申) 道通 정진大法會

오는 9월 4일 토요일과 일요일 경신일은 음력 7월 달 경신달이므로 동참하시어 대우주에 감춰지고 땅의 큰 비밀을 하늘의 뜻과 본인이 직접 통섭, 권능과 능력을 받아 만민을 제도할 수 있는 천장지 비법 대비밀장의 근본인 육경신 도통으로 새천년을 맞는 지도자 및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력 7월은 잔나비달이므로 임문하신 분에게는 영과 혼을 마음으로 통섭 정신,심신,육신의 구천을 평정. 大道心通과 심리학적 심의 사상과 六憲六根六識으로 천안통, 천리통, 탐심통, 신축통, 속명통, 무진통을 얻어 수마, 인마, 색마들을 항복받아야 도인, 선인, 진인 출현이므로, 유불선,천주교, 기독교, 토속종교를 육통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응명정진 수행으로서, 생애의 영생비법과 영가해 탈법과 득도법으로, 병마에 고통받고 신에 고통받는 분들은 道通 道通과 본인기도로 성취하는 날인교로 귀신도 알지 못하며, 천복의 음력 7월달 경신달인교로 모든 마장을 이기고 큰 뜻을 가진 분은 태양의 진면목을 채득, 후천증상 인본시대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천리한 태양의 이름으로 가름 합니다.

- 입제 : 9월 4일 亥시,해제 9월 5일 亥시 일요일
- 회비 : 1박2일, 식사제공, 일금 5만원
- 장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0-188호 본원
- 전화 : 02)821-6622/04923-3110 휴 016)239-3110
- 노선버스 85,25,26,94,95,102,303,33-1,142,26-3
- 전철호선 노랑선역 하차 버스 2호선 신림동 7번출구 앞 버스정류장 (구보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골목 안에 있음)

太日宮六神道通會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태일 법사 합장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 ◆ 초중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승차하지 않고 힘써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력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원벽하게 절하는 비법
- ◆ 열매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동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많아지며 종단전에 함양하게 풀려 큰 소리로 열매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침처럼 바닷물에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 ◆ 장제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 ◆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를 열매 정진,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법 점검, 축원 기도 7회
- ◆ 넉넉한 특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차 수행체력, 특별소원취하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집한다.
- ◆ 철야한 수행교육을 수시 수행법,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4시, 식수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면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 차를 임에서 다량의 약속이 나눔 (일년 두어도 이거까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상 법왕정사 수행원 골빛고을 소금강 금강지체보궁, 두라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피 마을) 소리상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철거 수련한 소리상 16만원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